

尹 당선인 “인수위 구성 속도…주말부터 정부 인수 업무”

중로구 통의동 집무실 첫 출근 “지역공약 신속히 국정과제 반영” 공수처 권한 축소 본격화 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톱3’와 상견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이들과 만나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인선을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주말부터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선인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기획본부장은 “당선인의 뜻을 잘 따와서, 안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윤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은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웃었고, 안 인수위원장도 “맞다”고 거들었다.

한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4일 “잘못된 제도라도 법에 이미 설치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조정해 다른 수사 기관이 하려는 사건을 뺏아서 하려는 건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중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 당선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지역균형위원장 김병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의 차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두 사람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들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시길”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두 특위 위원장 인선에 대해 “김한길(전)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며 “김병준 교수는 자치분권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의 정권 보우대 모습, 미숙한 수사 행태, 언론자유까지 침해하고 개인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통신자료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권한 축소는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정부사법행정 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를 곧바로 폐지하기보다 법 개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6월 지방선거 공천 새바람 부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쇄신 발맞춰 여성·청년 확대”

짬짜미 공천 등 없어질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쇄신과 변화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인지를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그들(여성·청년)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로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늘히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성폭력, 성 비위, 권력형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6월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성 및 청년 공천 확대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의 가산점 정도로는 기존의 지역 기득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광역의원 공천의 경우, 여성 및 청년 지역구 지정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기초단체장의 경우, 여성 및 청년 공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에서 여성 및 청년에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일부 현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 등

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지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연대한 짬짜미 구도를 정치 신인이나 청년·여성들이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에서도 광역·기초의원 청년·여성 공천 확대는 강조하면서도 기초단체장의 혁신 공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등 민주당 강세 지역 현역 단체장이 비리 연루 등으로 경선 배제가 되는 경우,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입김 등 기존의 공천 틀을 깨지 않고는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당이 시도당의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 혐의경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지역 일부 단체장들은 자신의 지위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 권리당원을 대거 확보해 사실상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기득권 구조를 깨고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현안이지만 과연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광역·기초의원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 추진단 등이 만들어질 텐데 비대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갈라진 민심 치유, 국민 통합이 최우선 과제”

선거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차기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 대선 후 최우선 과제를 ‘국민 통합’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됐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

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존중·배려·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협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됐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역량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각 부처를 향해 “입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며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긴박한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거론하며 “정부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셋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도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협대 350명 장군 등 VIP전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임소문 김 영 관 회장

상담 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